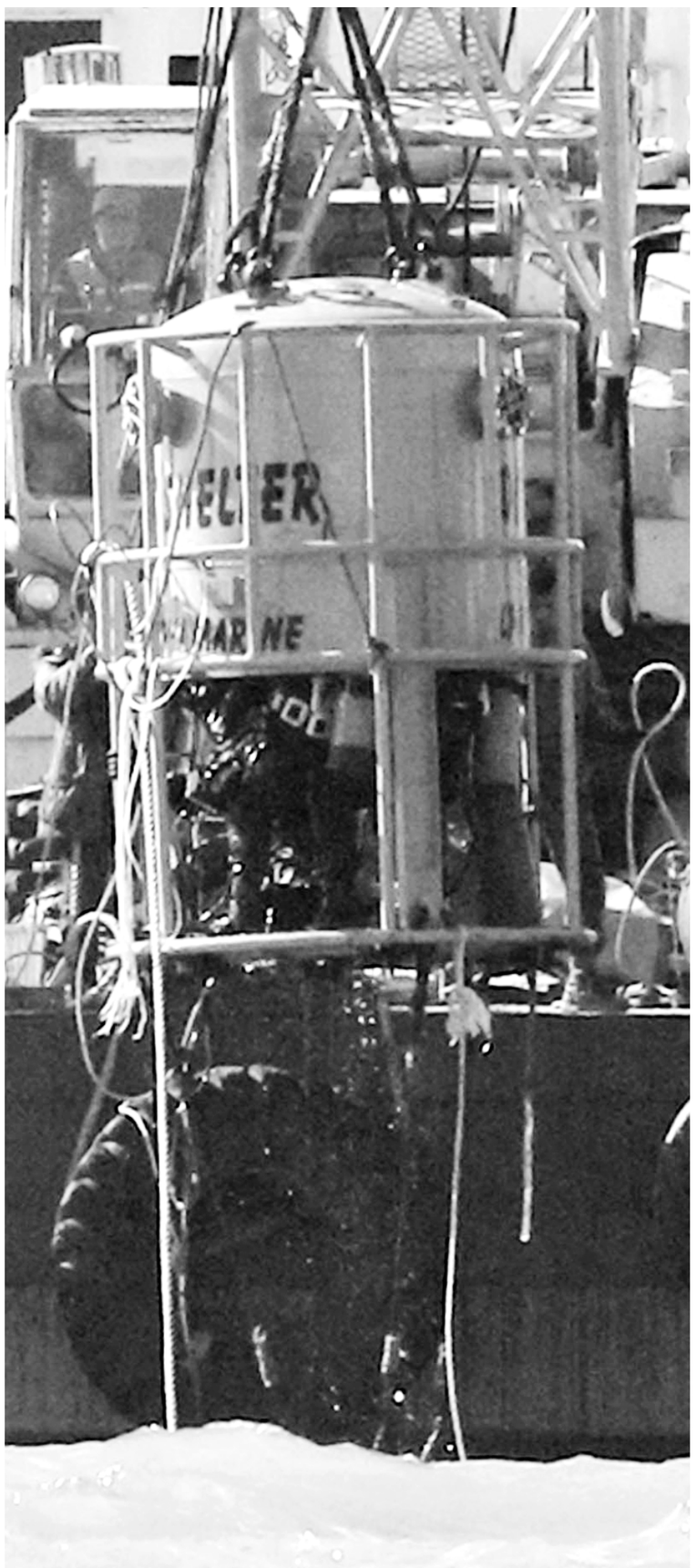
“잠수사 왜 적게 투입하는지 베테랑인 나도 이해 안가”



투입 언제쯤…

세월호 침몰 15일째인 30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 투입된 해난구조장비 ‘다이빙 벨’이 물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역 나누면 줄 안 얽히고 다수 투입 가능

서해훼리 때는 일주일만에 시신 90% 인양

“사고 첫 날부터 민간 잠수사 활동 막혀”

“가이드 라인을 왜 6개 밖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잠수 인원을 왜 이렇게 적게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훼리호때는 일주일만에 90% 이상의 시신을 인양했고 유실된 시신도 단 1구도 없었거든요!”

침몰한 세월호 시신 인양작업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당국의 구조 및 시신 인양작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잠수 경력 25년차 정권일(47·진도)씨도 정부의 시신 인양 작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정씨는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시신 인양 작업에 참여해 10구 이상의 시신을 인양했으며 SSI(스쿠버다이빙 스쿨 국제 연합) 평가관을 지낸 전문 잠수부다.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는 다이버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스쿠어다이버교관 출신이다.

당국은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전북 부안 앞바다와 달리 진도 맹골수도는 조류의 세기, 시정거리, 수심 등 바닷속 환경으로 인해 시신 인양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작업에 동참했던 잠수 전문가들의 설명은 달랐다.

정씨 등 민간 잠수사들은 먼저 가이드 라인 갯수부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사흘만에 겨우 1~2개의 가이드 라인을 설치, 적은 수의 잠수사들이 제한적으로 시신 인양작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물살이 약할 때 시정 거리 1m 정도, 유속이 빠를땐 30㎝ 정도의 시야가 확보됐다”면서도 “아무리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정도의 잠수경력과 담력 있는 잠수사라면 가이드 라인을 붙잡고 얼마든지 시신 인양작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잠수사 정권일 씨

또 정씨는 “해경이 동시에 수 많은 잠수사를 투입하면 줄이 얽혀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구역을 나눠서 투입하면 아무런 사고 없이 시신인양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의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씨는 “사고 초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았을때 선체에 공기주머니를 매달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거나 가이드 라인만 첫날 설치 됐다면 결과가 달라 졌을 것” 이라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는 지 금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씨 등 잠수 전문가의 주장대로 가이드 라인 설치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세월호 선체에는 공기 주입이 50시간여 만에 이뤄졌으며 잠수사들의 선체 진입도 나흘만에 이뤄져 구조 및 시신 인양 작업이 늦어지게 됐다.

사고 해역에서 수색활동을 벌인 특전사 출신 민간 잠수사 황영복(47)씨도 마찬가지다. 황씨 등은 “사고 첫날부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 면 막는 경우가 많았고, 투입 시켜주더라도 정조 때가 아닌 유속이 거셀때만 이뤄졌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일부러 배제하는 것 같아 얼마전 철수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대책 메뉴얼 3000개…대응 훈련은 ‘0’

④넘치는 메뉴얼, 실행이 먼저

2012년부터 재난대비 강화…선박사고 포함 안돼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20년간 안전교육 ‘말로만’

#지난 25일 334명의 탑승자를 태운 스페인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배에 불이 나자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갑판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장을 포함한 선원, 구조 당국이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사고에 대처,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없고, 스페인에는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은 눈물을 흘렸고, 스페인 국민은 소중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피 매뉴얼’이 없고, 충분히 연습도 하지 않아 세월호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국내 한 종편 방송을 통해 희생자 가족이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국내 해상 재난 매뉴얼의 한계가 여실히 담겨져 있다.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이 희생자들에게 해 준 것이라고는 “위험하니 움직이지 마라”는 게 전부였다.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 말에 따라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됐다.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사망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국내에선 선원 안전교육, 여객선 관리체계, 재난 발생 시 소통체계 구축, 노후·개조 선박 관리방안, 민간 구난업체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이번 사고에는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사고대책 매뉴얼도 무려 3000여개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또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형식적 매뉴얼도 문제지만 승무원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를 더욱 키웠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정작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위험에 처한 승객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다.

재난 대응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 대비훈련을 해왔지만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실시된 재난 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 훈련도 매년 7월 방재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 훈련을 진행했을 뿐이다.

되풀이되는 해상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해상 재난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한다. 배가 복원력을 잃거나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등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승무원 훈련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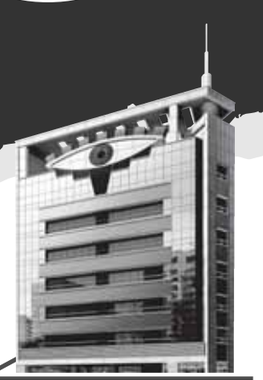
정부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항공사고, 철도사고, 도로·터널사고, 교량·댐 붕괴사고, 전세버스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 전면 검토해 상반기 중에 전면 손보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운암동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의원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럼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임야(17,203㎡)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